



보배코스메틱 '네클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인증받은 천연 보습제”

“천연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함유된 메도우프시드오일이 35% 이상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보습력이 뛰어난 시어버터와 올리브오일도 들어 있습니다. 7가지 유해화학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영업 경력만 16년째인 정재연 보배코스메틱 사장은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상’을 받은 ‘네클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에 대해 “입술 손발꿈치 눈가 발등 건조한 모든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라며 “특히 가을 겨울철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꼭 갖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이 회사를 차린 정 사장은 좋은 재료와 적합한 제형, 향기 등을 고르고 골라 올해 5월 알로에 진정젤을, 8월엔 멀티밤을 내놨다. 야심작인 멀티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름개선과 미백의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대한피부과학연구소의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보습·노화방지 효과
멀티밤은 최근 립밤, 핸드크림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이다. 네클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은 제온으로 녹여서 필요한 곳에 바르는 고체 형태다. 정 사장은 “화장품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좋은 성분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브랜드가 유명하고 광고만 많이 하면 잘 팔리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내가 죽고 지인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창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원가가 좀 비싸더라도 올리브오일보다 효과가 좋은 메도우프시드오일을 썼다. 메도우프시드에서 추출한 이 오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보습 코팅 피부유연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다. 정 사장은 “이 제품 하나면 핸드크림과 립밤, 헤어에센스 등을 따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며 “최근 인기있는 외국 브랜드 멀티밤 용량이 15g이고 우리 제품은 30g인데도 가격이 2만원으로 같다”고 강조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는 향
네클라 멀티밤은 유아용 파우더 향을 담은 ‘쁘띠 파우더’와 상큼한 레몬 향이 나는 ‘시트러스 레몬’ 등 2종으로 나왔다. 현재 소셜커머스 쿠팡과 단독 판매 계약을 맺고 개당 8900원에 할인판대 중이

화장품 영업하다 창업
고가 메도우프 씨 자극 줄여
“내년 매출 두 배로 올릴 것”

다. 정 사장은 “시트러스 레몬 향은 남성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보습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직장인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네클라를 ‘고품질, 합리적 가격대의 스킨케어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네클라는 ‘내추럴’과 ‘클리어’의 합성어로 ‘천연 소재로 만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멀티밤에 이어 이달 말엔 네클라 크림 2종도 판매를 시작한다. 그는 “올해 10억 원의 매출을 내고 내년엔 10여종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20억원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정재연 보배코스메틱 사장이 ‘네클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을 설명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9월의 으뜸중기제품=△제니컴의 산업용 자외선센서 (042)862-3982 △매직에듀의 학습용 놀이매트 엘리매트 (02)2038-0080 △보배코스메틱의 네클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 (070)4814-8146 △보니아코퍼레이션의 블루투스 헤드셋 (02)547-7894

“수소수 제조기·온열침대로 프리미엄 건강 시장 공략”

김서곤 슬고바이오메디칼 회장

“수소수 제조기와 온열전기침대로 프리미엄 건강시장을 공략하겠다.”

올해로 창립 40년을 맞은 슬고바이오메디칼 김서곤 회장(사진)은 16일 “수술기구 등 의료기기 부문은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선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수소수 제조기와 온열전기치료기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중계상으로 시작해 수술용 의료기구를 국산화했다. 이후 척추용 임플란트 등을 개발, 매출을 300억원대로 올려놨다.

경기 평택 공장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는 10여종의 수소수 제조기가 놓여 있었다. 김 회장은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수소수 세로 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2년간 연구 끝에 수소수 제조기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슬고바이오메디칼은 현재 렌탈을 통해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고가의 정수기 형태로 된 제품밖에 없었고 수소수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아 판매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즉석에서 수소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텀블러형과 벽걸이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춰 고객층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식품과 헬스케어 장비업체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슬고바이오메디칼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축구대표팀에 수소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략제품인 온열전기침대에 대해 김 회장은 “온열전기침대의 가장 큰 약점은 화재 가능성”이라며 “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 내용은 침대 윗부분에 공기층(에어쿠션)을 뒤 이 곳에 열을 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기술이다.

김 회장은 “현재 수술용 기구와 척추용 임플란트 등 의료부문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제품은 수출에 주력하고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병원을 설립해 임상을 함께 하면서 새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한국 여성 유방암 발병률, 日보다 높아져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본을 앞서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는 2012년 기준 유방암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발생 빈도가 52.1명으로 일본(51.5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만 해도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유방암 발생률이 38.9명이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유방암 환자는 1996년 3801명에서 2011년 1만6967명으로 급증했다. 15년 사이에 4.5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발생 주요 원인으로 ‘생활습관의 서구화’를 꼽았다. 지방 섭취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전체 유방암 환자의 58.2%에 그쳤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비율은 2012년 73%로 높아졌다.

송병주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외과 교수)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지방질이 많은 육류 중심의 포화지방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1기와 2기 진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97.2%, 92.8%로 높다. 하지만 4기나 말기 유방암에 걸리면 5년 생존율이 44.1%로 떨어진다. 이준혁기자 rainbow@hankyung.com

“FTA 통해 세계시장 진출... 중소기업 재기 발판 됐다”

무역협회, FTA 활용 사례 발표

사워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조이포라이프는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와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 활로를 고민하던 중 때마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홍콩원 조이포라이프 이사는 “전체 매출 11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FTA를 통해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것이 재

기의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조술당은 2011년부터 수요가 줄고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와인 생산 쪽으로 활로를 잡았다. 2년간 연구를 통해 스파클링 와인 ‘쏘아(sooa)’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설립한 미 현지법인 양양은 내달 미국 주류 도매업체와 월 100만켤, 연간 21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와 공동으로 연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109개 기업의 FTA 활용 성공 사례와 9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조이포라이프 양양 등을 포함해 18건(기업 15건, 학생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우수 사례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제품 개발 등 FTA를 적극 활용한 기업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다 FTA를 통해 경쟁국을 제치고 수출에 성공한 업체 △전사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협력사

지원 등으로 FTA 활용에 성공한 사례 △시장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빛을 본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목 뒤는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도 많았다. 쌀 가공업체의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한 지방생형기 수출, 해외 애완견인구 증가를 겨냥한 반려동물 기저귀 수출 아이디어 등이 제출됐다. 박수진기자 psi@hankyung.com

농수산물 건조용 대용량 히트펌프도 휴먼팜이 최고!! 실외기가 있어야 진짜 히트펌프입니다!!

고객여러분께서 직접 휴먼팜으로 농수산물을 건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휴먼팜은 티끌만큼의 미세먼지 오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휴먼팜만이 14년간 전국 한랭지에서 입증된 고속제상기술(HSD)로 성애없는 완벽한 고효율 히트펌프식 건조성능을 보장합니다.



HUMAN POWER

- 100% 무공해 운전
- 80% 공사기간단축
- 70% 공간 절약
- 60% 유지비절감
- 무인운전실현

영업품목

- 휴먼냉난방 공기조화기, EHP(히트펌프)
- 휴먼하이(산업용 가습기), 확장형 냉난방기
- 자동차용-PLC 컨트롤러-소프트웨어
- 농업온실용 냉난방기, 농수산물 대용량 건조기
- 휴먼항온습습기(실형실-전산실-무균실용)
- 건물, 생산설비 에너지절약 컨설팅

↓ 운영비용절감

고성능 히트펌프효율 극대화
불필요한 열원제거, 폐열회수

↑ 부가가치창출

불필요한 설비를 줄인 공간활용
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효과

**냉풍건조 25~35도
여름건조**

**온풍건조 40~60도
겨울건조**

**패속건조
무균건조
무인건조**



휴먼공기조화기 주요납품실적(Since 2001 ~ 2014)

연회기타	O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경인항 통합센터,글로벌스경매장	관공서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성남시청, 육군본부, 공군본부, 한국전력공사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제주스카이힐, 춘천오너스클럽, 아름다운골프	종교/교육	중앙교회, 대림교회, 은누리교회, 서울대, 연세대, 영지대, 육군정보학교
주상복합	해운대/PARK, 삼성레미안, 현대하이패러, 현대힐스테이트	전시점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 구인사, 천안문화회관, F경주장
배우르권	대화제약, 천계약품, 서울랑셀, 코스맥스바이오, 일진메디칼	전자크린	LG전자, 코텍전자, 울타일,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연호전자, 영성정밀





(주)코백엔지니어링

www.kohvac.com / TEL:02-2082-8899

사원모집(기술영업·판공설계)